

양림동 '역사마을' 만든다

호남신학대·수피아여고 일대 개화기 유적 관광자원화

광주시 내년 착공

광주의 개화기 기독교 선교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남구 양림동 호남신학대 일원이 지역의 대표적인 '개화기 역사문화마을'로 조성된다.

광주시는 호남신학대 주변 개화기 유적을 중심으로 한 테마형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최근 문광부의 문화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내년 초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총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역사문화마을사업'은 내년 착공해 2013년 완공 예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양림동 일대는 지난 1900년 초 광주에 온 미국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비롯해 의료봉사활동, 사회복지활동 등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광주지역 최초의 기독교 전래지이자 개화기 근대 유적을 대표하는 자원이다.

시가 구상중인 개화기 역사마을의 대상은 호남신학대학교와 수피아여

중·고, 기독교병원 일대 등 총 20만㎡(6만4000평)에 이른다.

이 일대에는 1910년께 세워져 전쟁고아의 보육 장소로도 활용된 '우일선 선교사 사택'을 비롯, ▲선교사 묘역(호남신학대)-1900년 이후 선교활동 및 의료봉사활동 과정에 종도병 등에 걸려 병사한 선교사들의 묘역 ▲오원기념관(시 유형문화재)-1909년 순교한 오원선교사를 기리기 위해 1014년 건립 ▲수피아홀(등록문화재)-1911년 지어진 네덜란드 양식의 건물로 수피아학교의 모태가 된 건물 등 20종의 유적이 분포돼 있다.

시는 우선 20만㎡의 범위에 산재돼 있는 20종의 유적들을 원형 보존하는 한편 기반시설을 정비해 1~2시간 정도에 둘러볼 수 있는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호남신학대 일대의 유적들이 대부분 90년에서 100년을 넘긴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숲과 나무들도 근대 이전에 심어진 것들이 많아 관광자원화는

물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결되는 도심공원으로도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에서 5·18을 제외하곤 근·현대 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책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개화기 역사마을은 근대 문화 자산 보존이라는 역사성 확보와 동시에 문화중심도시 인프라이므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다.

시는 조만간 양림동 주민과 호남신학대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화기 역사마을 TF팀'을 구성, 구체적인 마을 조성방안과 향후 운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호남신학대 차종순 총장은 "양림동 역사마을 조성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개화기 기독교 성지 성역화 사업이라는 의미가, 지역 차원에서는 근대유적 보존 및 문화자원화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개화기 마을은 관광객 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중심도시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장애인체전 개막

10일 경북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에서 광주시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내년도 장애인체전 개최인 광주시 선수단은 이날 개막식에서 첫번째로 입장했다. 이번 체전은 김천종합운동장 등 경북 지역 36개 경기장에서 오는 14일까지 5일간 펼쳐진다. > 관련기사 23면

/김천=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변양균-신정아 가까운 사이”

靑, 거짓해명 드러나 변실장 사직처리...檢, 직권남용 조사

전 광주비엔날레 감독이자 동국대 교수였던 신정아 학위위조 파문의 외압 당사자로 거론돼오던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검찰 수사와 청와대 조사 과정에서 신씨와 가까운 사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또 변 실장이 신씨 학력위조 의혹을 폭로한 장운 스타트업과 만나 신씨 문제를 상의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청와대가 10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변 실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후 변 실장의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 청와대와 변 실장이 지금까지 신씨와의 관계를 전면 부인해왔고, 정치권의 공격을 '정치공세'로 비관해왔다는 점에서 파문 확산이 불가피해졌다.

전해철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변 실장이 신씨와 가

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신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고, 이에 따라 변 실장이 조사나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법무장관이 어제(9일) 문재민 비서실장에게 알려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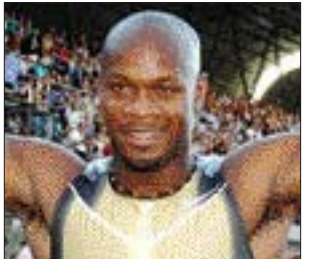
전 수석은 “비서실은 이에 따라 변 실장에게 확인한 결과 그동안 해명해온 내용 중 몇 가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변 실장은 신씨와 예일대 선후배 관계로 수년 전부터 잘 아는 사이로 빈번한 연락이 있었으며, 지난 7월8일 저녁 장운 스타를 만났을 때 신씨 문제를 언급한 사실이 있고, 대통령의 과테말라 방문을 수행하던 중에도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운 스타와 연락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난 7월1~5일 과테말라를 방문했고, 변 실장은 이를 수행했

었다. 전 수석은 ‘과테말라 방문 중 변 실장이 친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장운 스타와 연락한 사실’에 대해 “변 실장 설명으로는 친구를 통해 ‘장운스님에게 연락해서 귀국하면 장운스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변 실장이 신씨가 동국대에 교수로 임용되기 이전부터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가 신씨의 동국대 교원임용과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에 개입했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외압 의혹을 밝혀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연합뉴스



9.74

파월 100m 세계新

자메이카 스피린터 아사파 파월(25)이 육상 100m에서 9초74를 찍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됐다.

<관련기사 22면>

파월은 10일 오전 이탈리아 리에티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그랑프리 육상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9초74에 결승선을 통과해 자신이 2005년 6월14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세운 세계기록(9초77)을 2년3개월만에 100분의 3초 앞당겼다. /최재홍기자 lion@

광주·전남 기초단체 “洞 통폐합 반대”

“70~80% 해당 현실성 없어”...행자부선 불이익

소규모 동(洞) 통폐합에 소극적인 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행정재정상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는 오는 9월까지 자국의 16개 광역시도와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 계획서’를 제출받아 타당한 이유없이 동 통폐합을 거부한 지자체를 가려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광주와 전남지역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소규모 통폐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단 한곳도 없는 상태다.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행자부 기준에 따른 경우 동의 70~80% 가량을 통폐합해야 하는 등 사실상 실현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 등 타 지역보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지역

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광주·전남은 아예 행정구역 자체를 완전히 개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광주는 인구 2만명 이하 동이 66개로 전체(91개) 동의 73%에 달하지만 이는 자치구도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없다.

전남도 시 단위의 동 66개가 모두 통폐합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통폐합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데다 주소 변경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통폐합 추진에 소극적이며, 공무원이 노조도 구조조정 등을 우려해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우일선기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ac.kr

세계적 명사 100명
전남과학대학
http://www.jnsci.ac.kr

대한조선주식회사

절대도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2007 제1기 기술연수생 모집